

우리는 어떻게 발심하면 되는가?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해석본>의 마지막 부분인 도에 나아가는 행상을 분별하는(分別發趣道相) 대목에서 세 가지 발심의 양상을 설명한다. 부처가 얻은 깨달음의 길을 향해 가겠다는 마음을 낸 구도자인 보살들의 실천의 지를 세 단계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먼저 마음속에 믿는 마음이 일어나 그것을 바탕으로 수행의 의지가 확고해지는 단계를 '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이라 하였다. 이는 부정취(不定聚)중생이 선근(善根)을 혼숙한 힘으로 업의 과보를 믿어 심선(十善)을 일으키며,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무상보리를 구하고자 하여, 부처님을 받들어 공양하고 신심을 수행하여 1만 겁을 지나게 되면 신심이 성취되어 발심의 계기를 얻게 된다. 불보살의 가르침으로 발심하게 되거나 혹은 대비심 때문에 스스로 직접 발심하기도 하며, 정법이 멸하고자 할 때에는 법을 보호하려는 인연으로 발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가 믿음을 성취하여 발심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발심을 한 자는 부정취에서 정정취(正定聚)로 들어가 마

침내 물러나지 않고 여래의 종자(如來種)에 머물게 되어 성불할 수 있는 올바른 원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수행의 지위로 말하면 심신(十信)과 십주(十住)의 지위에 있는 발심상태라 할 수 있다. 부정취와 정정취라는 말은 불도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와 관련을 지어 사람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말하는 삼

선근을 혼숙한 힘을 통해서
十善 일으켜 발심 계기 얻어
直心·深心·大悲心 발현해

취설(三聚說)에 나오는 용어이다.

• 사정취(邪定聚): 인과(因果)의 이치를 믿지 않고 전혀 불법(佛法)의 수행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 부정취(不定聚): 인과의 이치를 믿고 심신의 수행단계에 들어왔으나 아직 수행이 완속하지 못하여 성불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

• 정정취(正定聚): 이미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이승지(二乘地)로 물러나거나 삼악도(三惡道) 등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 사람들.

삼취 가운데 '신성취발심'은 부정취 중생이 정정취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단계의 발심이다. 본문에서는 신성취발심의 양상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나간다.

“만약 어떤 중생이 선근이 미미하고 적어 오래 옛적부터 번뇌가 깊고 두터우면 비록 부처님을 만나 공양을 올리는 좋은 업을 쌓더라도 겨우 인간과 천상의 중자를 일으키며, 혹 성문이나 연각이 되는 자가 있더라도 근기가 확정적이지 못해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한다. 혹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되 일만 겁(劫)을 경과하지 못하고도 중간에 인연을 만나 발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부처님 상호를 보고 발심하며, 또 여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 일로 인하여 발심하며, 또는 이승인(二乘人)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발심하기도 하고, 또는 남에게 배워서 발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경우의 발심은 모두 일정하지 않아 만약 나쁜 인연을 만나면 문득 마음이 나약해져 발심을 잃고 이승들의 지위에 떨어지게 된다.”

발심의 동기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과 속세의 선근이 어떠한가에 따라 근기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인연의 종자란 인간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복을 누리는 선업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과법에 의해 좋은 과보를 받는 경우다. 발심을 하고서도 나쁜 인연을 만나 수도에 장애를 받게 되어 대승의 신심이 없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또한 발심의 더디고 빠름이 일정하지 않은 부정취 중생이 이승에 떨어지는 허물을 밝히고 있다.

대승에서는 이승들(聲聞, 緣覺)의 수행을 독선적인 것으로 보고, 이타의 원력이 없는 수행은 완전한 수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믿음을 성취한 발심의 내용은 다시 세 가지로 설명된다. 직심(直心)과 심심(深心)과 대비심(大悲心)이다. 직심은 진여법을 바르게 생각하는 마음이고, 깊은 마음은 온갖 선행을 즐겨 모으는 마음이며, 대비심은 중생의 괴로움을 뺏아주고자 하는 마음이다.

오로지 진여를 생각하면서 온갖 현상을 대하더라도 신심을 잃지 않고 선행을 모으면서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 발휘될 때 믿음이 성취되어 발심이 된다는 것이다.



항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아름다운 그침으로

앞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딛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지혜도 아름답다. 사회 구조는 빈틈이 없을 만큼 씨줄날 줄로 짜여 있다. 질서와 차례, 합격해야 할 시험과 통과해야 할 관문도 부지기수이다. 유교의 오상(五常)인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도 지켜야 할 덕목이요, 교육과 문화생활에 있어서도 율타리도 많고 호루라기의 경고음도 많이 들려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불교의 수행 집단으로 한정해 물러남의 미학(美學)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불교에는 개차법(開遮法)이란 게 있다. 열 때는 열고, 막을 때는 닫는, 수행인의 생활 지침이 담긴 가르침이다.

휴선(休善)이란 말도 있다. 아름다운 그침을 의미한다. 회향(回向)이란 말도 있다. 자신이 닦은 공덕을 이웃에게 나눔을 의미하며, 아름다운 마

힘의 논리는 젊은이들의 몫이요 늙어 갈수록 있는 듯이 없는 듯이 꾸밈과 조작에서 멀어져야 한다. 일을 시작하고 별이는 것은 젊은이의 차지요, 늙어 갈수록 마무리가 개운하고 말끔해야 한다.

인위적인 객기는 젊은이들이 부러워야 할 시련과 통과해야 할 관문도 부지기수이다. 무위(無爲)로써 무위(無爲)를 즐기며 무위(無爲)로써 무위(無爲)로 살 일이다.

더함도 덜함도 없이 겸손과 하심(下心)이 기본이 되어 상식이 통할만큼 말과 행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주책 따는 가벼움보다는 말을 줄이는 신중함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소위 평생을 수행해 온 수행승들이 명에 주면서 서서거려거나 재색(財色)문제로 잡음을 남긴다면 그는 이름과 색깔이 수행승일 뿐 진정한 의미의 수행승은 아닌 것이다.

참다운 포교사는 입으로 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더 큰 울림으로 돌래를 넓히는 것이다. 위의를 갖춘답시고 점잔

나이 들수록 '아름다운 그침' 실천해야 몸·마음 늙어 갈수록 맑고 고와야 한다

부리의 뜻도 담겨 있다.

사회에서는 퇴임과 은퇴라는 구조적 관문이 버티고 있다. 예술분야가 비교적 창작의 기능을 중요시 해 육체의 나이를 뛰어 넘고 있을 뿐이다. 요즘에 와서는 수명이 연장되고 노령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퇴임을 암박하는 정년의 나이도 뒤로 밀려나는 현실이다. '100세 인생'의 노랫말처럼 칠순까지 청춘이요 팔구십에도 건강이 거뜬할 만큼 백세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늙어갈수록 아름다운 그침을 실천해야 한다. 힘땀이거나 흔들리는 모습은 늙을수록 경계해야 할 민망하고 추한 몸짓들이

다. 몸과 마음이 늙어 갈수록 맑고 밝으며 고와야 한다. 재물의 끌어 모음에서도 졸업해야 하고, 명예의 줄다리기에서도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주장보다는 경청이 덕이 되고, 나서는 모습보다는 물러서는 모습이 아름답다. 드러낼 일도 감출 것도 없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연인으로서 살 일이다. 어떠한 명분과 구실을 앞세워도 늙음은 마무리를 의미한다.

부리며 허세와 허풍에 찌들어 있는 수행승은 경외의 대상은 될지언정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닌 것이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마음 편히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고, 아무에게나 착한 벗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참된 선지식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진솔하게, 방편설을 앞세워 속이지 않는 불교가 참 불교이다. 쥐여 줄 수 없고, 보여 줄 수 없는 형이상학 쪽으로 치닫지 말아야 한다.

진리는 숨어 있거나 깊고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진리는 우리네 생활 주변에 널려있는 것이다. 물처럼, 공기처럼, 자갈처럼, 땀처럼, 가죽처럼, 이웃처럼 널려있는 것이다. 다만 의식의 변화, 마음의 열림에 문제가 있을 따름이다.

불교는 오늘의 종교이다. 불교의 육도윤회는 죽어서 겪는 게 아니라 금세에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며, 지킬 박사도 되고 괴물 하이드도 되는 것이다. 아름다운 그침으로 자유인으로 회향할 일이다.

보살의 자비는 활이요, 보시는 화살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 보살이 지닌 강력한 무기

慈心端嚴身 悲心為千眼
(자심단엄신 비심위천안)
施為金剛杵 菩薩如帝釋
(시위금강저 보살여제석)
悉皆能 壞 貧窮阿修羅
(실개능취괴 빈궁아수라)
菩薩悲心弓 種種施為箭
(보살비심궁 종종시위전)
破貧窮怨賊 永無有住處
(파빈궁원적 영무유주처)
悲心堅固根 愛語以為葦
(비심견고근 애어이위경)
忍辱為枝條 布施以為果
(인욕위지조 포시이위과)
求者為鳥鹿 乞者如大風
(구자위조록 걸자여대풍)
能吹施果落 貧者得滿足

(능취사과락 빈자득만족)
菩薩出時夜 慈心如滿月
(보살출시야 자심여만월)
淨施以為光 求如拘牟頭
(정시이위광 구여구모두)
以淨施光明 令彼得開敷
(이정시광명 령피득개부)

번역

자재로운 마음과 단정한 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천 개의 눈, 보시를 금강저(金剛杵)로 삼은 보살은 불법을 수호하는 제석천과 같습니다.

모든 빈궁함과 아수라를 쥐고 능히 무너뜨릴 수 있나니, 보살의 자비심은 활이며 가지가지 보시는 화살입니다.

빈궁함의 원수와 적을 부수어 영영 잊

을 곳이 없게 하거나, 자비심의 견고한 뿌리에 사랑스런 말로써 즐기자랍니다.

인욕은 가지가 되고 보시로써 열매가 맺히나니, 구하는 이는 새나 사슴이며 얻고자 하는 이는 큰 바랍과 같습니다.

능히 보시의 바람을 불어 열매를 떨어뜨리면 가난한 이가 만족함을 얻나니, 보살이 출현한 때는 밤이요, 자비심은 둥근 달과 같습니다.

깨끗한 보시로써 빛이 되면 구하는 이는 연꽃과 같나니, 깨끗한 보시로써 광명을 비추기에 그 연꽃을 활짝 피어나게 합니다.

해설

제바라보살은 말한다. 보살은 제석천왕과 같은 존재라고. 제석천왕은 신들의 왕이다. 보통 인도의 인드라(Indra) 신을 의미하며, 제석(帝釋)이라고 한역된다. 베다신화에서 가장 유력한 신이었지만 불교사상에 유입되어 불법을 수호하는 신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보살과

더불어 부처님을 위호하는 존재로 제일 먼저 등장하면서, <화엄경>에서도 첫 품인 '세주묘엄품'을 통해 부처님을 찬타하며 둘째 장을 장식하고 있다.

제바라보살이 이런 신화적 존재를 끌어들이고 싶었던 것은 바로 절대 존재,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가 바로 보살이며, 보살도를 행하려는 그 마음이라는 중요성일 것이다.

온 세상의 가련하고 불쌍한 이들을 굽어 살필 수 있는 천 개의 눈을 지니고, 어떠한 악도 능히 때려 부술 수 있는 금강저(金剛杵)를 지닌 존재가 바로 보살이며, 보살의 자비심이며, 보살이 행하는 보시의 힘이다.

제바라보살이 말하는 보살상은 싸움의 신 아수라(Asura)를 무색케 한다. 강력한 적이 있었으니 바로 가난과 궁핍함이다. 그러나 보살이 지닌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활이다. 이 활의 이름은 바로 자비심이며, 화살은 바로 깨끗한 마음으로 베푸는 보시다. 모든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다.

佛紀 2560年 丙申年 Buddha's birthday |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일을 잘 처리한다고 해서 공정한 사람은 아니다. 옳음과 그름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는 이가 현명하다. 법구경

심신치유 MBSR명상교육도량

시 선 원

지도법사 우현 조원경
MBSR은 마음챙김 명상에 근거한 과학적인 스트레스 관리 행복명상 프로그램입니다.
■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순환로 308 11층
TEL 051)746-7611
cafe.daum.net/sisunwon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대한불교 조계종 길상사

[부설] 삼계선원·불교대학
성현덕회·단월회·지장회
참선반
주 지 만 제 혜 수
사 부 대 중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69번길 15(삼계동)
TEL 055)333-8202 / FAX 055)333-8203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금강암

주 지 정 만

사 부 대 중 일 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TEL 051)508-4509
FAX 051)051)508-4870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선찰

만 덕 사

(부산지방문화재 3호 만덕사지)

주 지 금 산 박 혜 명

사 부 대 중 일 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만덕로 63-13(만덕동)
TEL (051)334-3009

한국불교태고종

천 불 정 사

주 지 고 담
부 전 심 일
원 주 조정자 보살
신도회 회장 이정민 변호사
거사협회장 홍치표

사 부 대 중 일 동

■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230-9(장전동)
TEL 051)518-6362
FAX 051)583-6362

문화포교전문도량

동 립 사 문빈정사 포교당

주 지 효 산 성 타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화·문인화·채색화·그림교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143-12
TEL 051)508-2917 / H·P 010-6609-8011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당

진여원불교대학 (사)진여사회복지원

회 주 혜 총
원 장 남 보 타 월
봉사단장 정보덕집
사 부 대 중 일 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 930-8
TEL 051)338-1008, 337-1080